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설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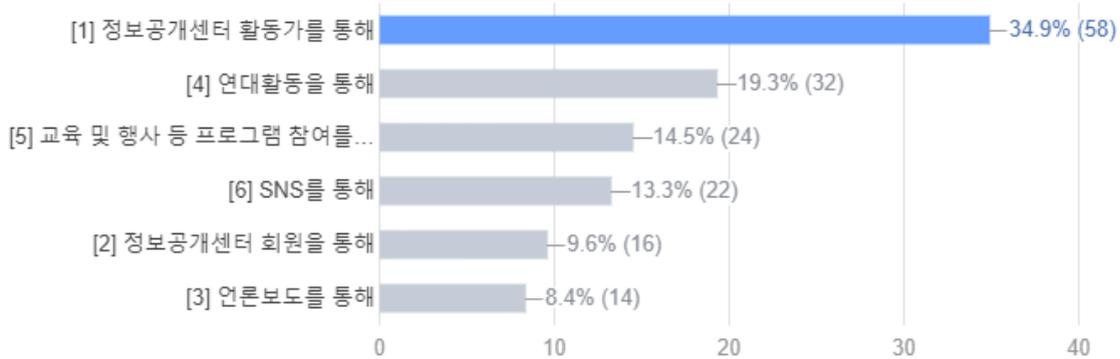
조사기간 | 2023.09.11 ~ 2023.09.17

문항 수 | 22문항(개인정보 관련 제외 문항 수 20문항)

응답 수 | 16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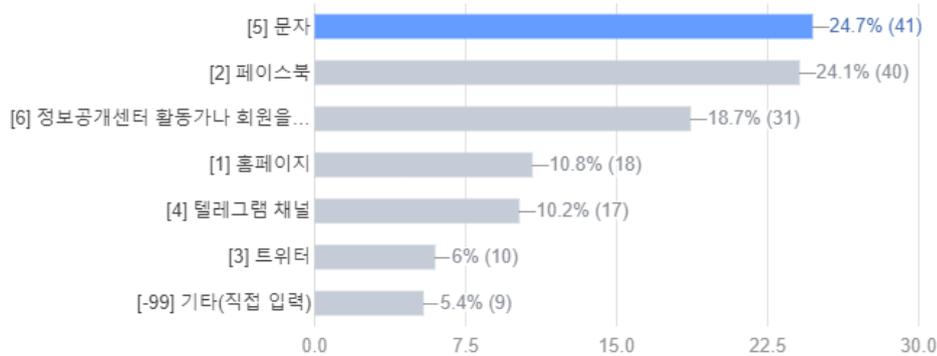
Q1. 정보공개센터를 처음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를 통해(34.9%)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연대활동을 통해(19.3%), 교육 및 행사 등 프로그램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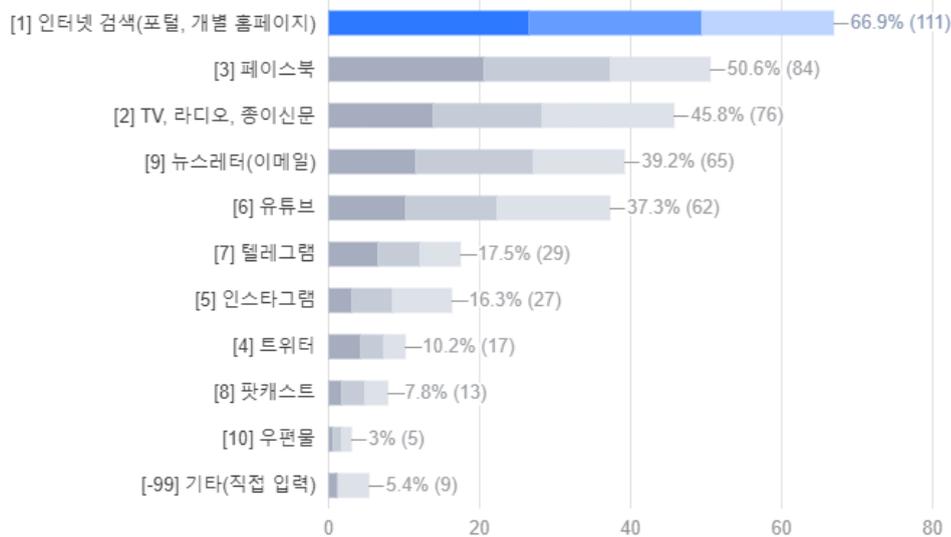
Q2. 정보공개센터 활동 소식을 주로 접하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가장 주된 경로 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문자(24.7%)**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페이스북(24.1%)**,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나 회원들..(1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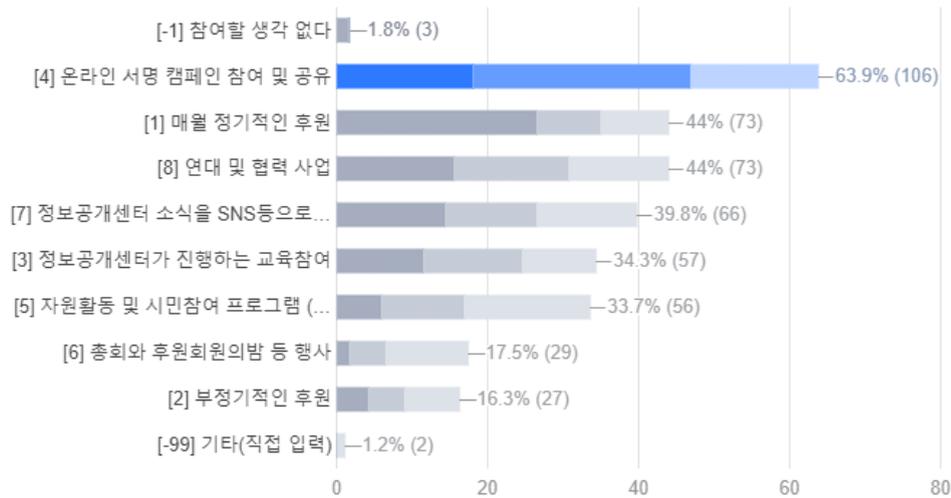
Q3. 평소 사회 현안과 관련한 소식을 접할 때 선호하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선호하시는 순서대로 3개의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1~3 순위 기준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66.9%** 의 응답자가 **인터넷 검색(포털, 개별 홈페이지)**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페이스북(50.6%)**, **TV, 라디오, 종이신문(4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4.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선호하시는 순서대로 3개의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1~3 순위 기준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9%**의 응답자가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 및 공유**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매월 정기적인 후원(44.0%)**, **연대 및 협력 사업(4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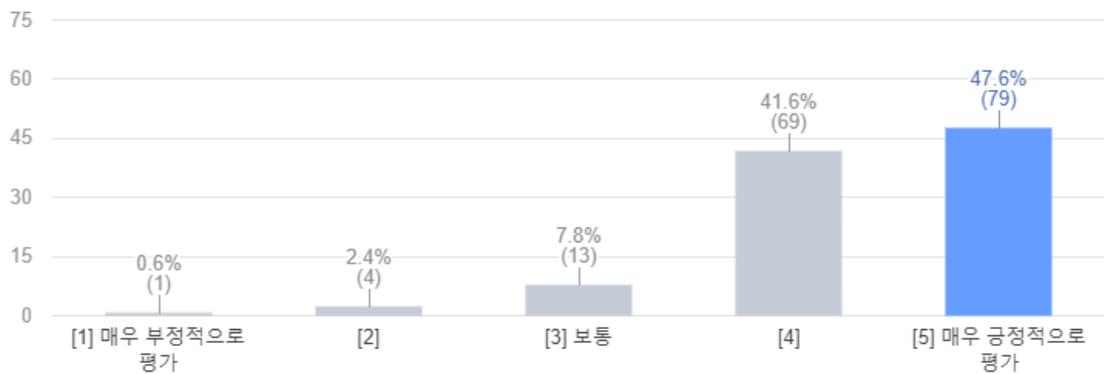
Q5. 지금부터 정보공개센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시되는 활동영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응답해주세요.

시민역량강화 : 알권리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 교육)

긍정 의견 Top2(4+5점)은 전체의 89.2%, 부정 의견 Bottom2(1+2점)은 전체의 3.0%로 나타났습니다.

점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긍정 의견 Top2(4+5점)이 부정 의견 Bottom2(1+2점) 보다 많은 긍정 편향 분포를 보입니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으로 4.33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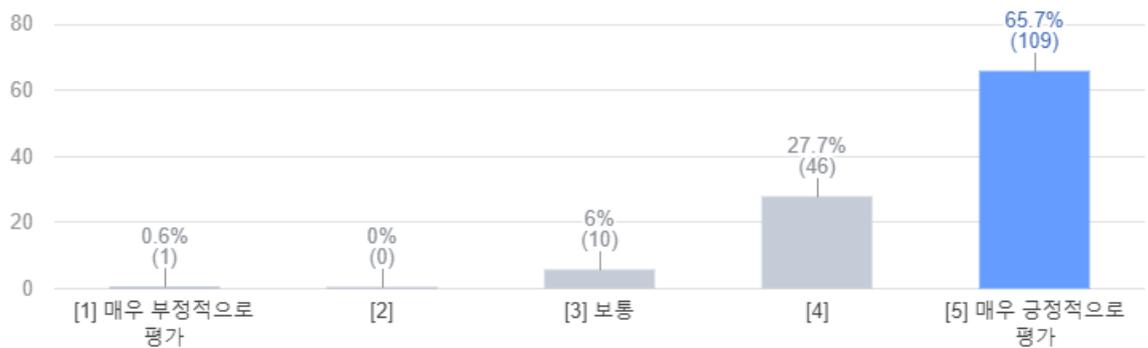
Q6. 지금부터 정보공개센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시되는 활동영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응답해주세요.

알권리 침해-권력감시 의제 발굴 : 정보 은폐가 핵심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문제와 현안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발굴함.(중대산업재해 사업장 공개 범위 확대, 국회의원 기록 및 정보공개제도 마련)

긍정 의견 Top2(4+5점)은 전체의 93.4%, 부정 의견 Bottom2(1+2점)은 전체의 0.6%로 나타났습니다.

점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긍정 의견 Top2(4+5점)이 부정 의견 Bottom2(1+2점) 보다 많은 긍정 편향 분포를 보입니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으로 4.58 입니다.



Q7. 지금부터 정보공개센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시되는 활동영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응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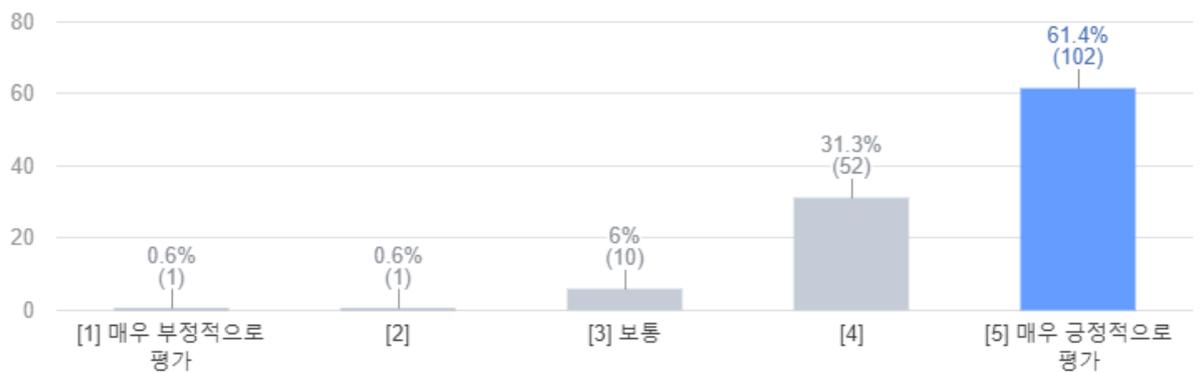
알권리 침해 대응 :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실현,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 협력적 대응을 추진함.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1997 외환위기 IMF비밀기록 공개**)

긍정 의견 Top2(4+5점)은 전체의 92.8%, 부정 의견 Bottom2(1+2점)은 전체의 1.2%로 나타났습니다.

점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긍정 의견 Top2(4+5점)이 부정 의견 Bottom2(1+2점) 보다 많은 긍정 편향 분포를 보입니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으로 4.52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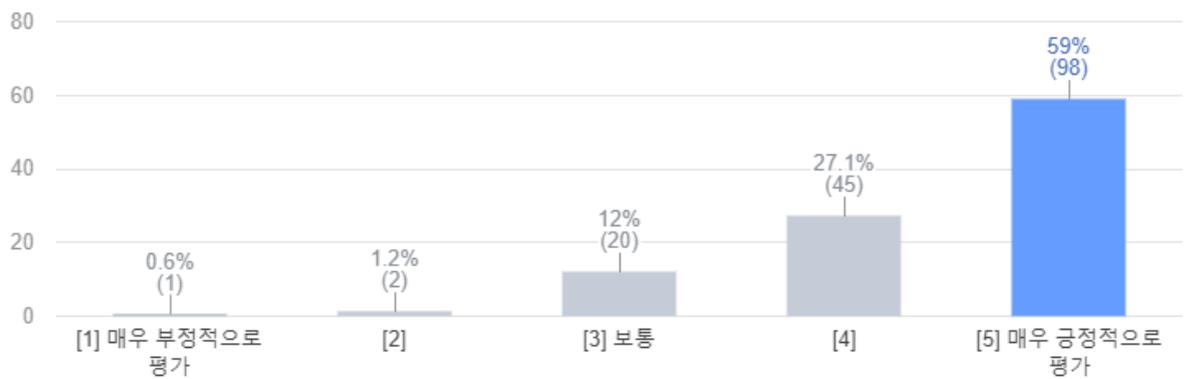
Q8. 지금부터 정보공개센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시되는 활동영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응답해주세요.

정보 접근성 확보 및 영향력 확산 :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개정보의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함.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국회의원 재산데이터 공개)

긍정 의견 Top2(4+5점)은 전체의 86.1%, 부정 의견 Bottom2(1+2점)은 전체의 1.8%로 나타났습니다.

점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긍정 의견 Top2(4+5점)이 부정 의견 Bottom2(1+2점) 보다 많은 긍정 편향 분포를 보입니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으로 4.43 입니다.



Q9. 지금부터 정보공개센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시되는 활동영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응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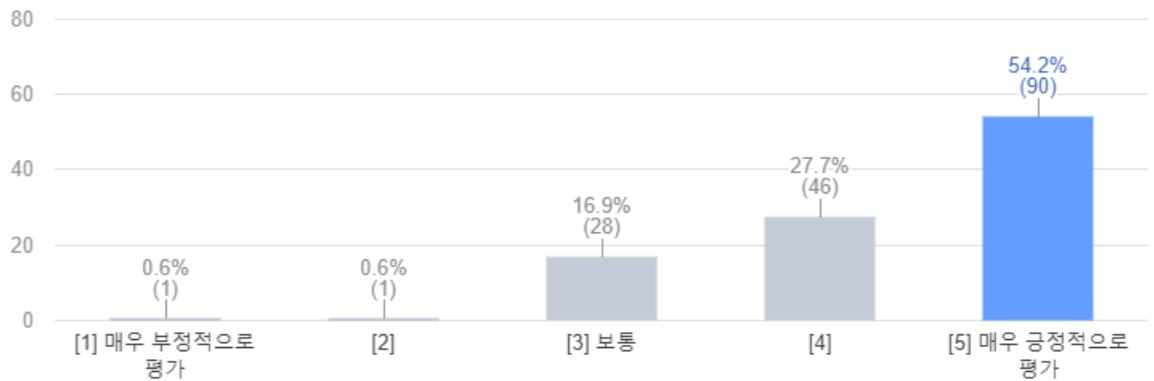
알권리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 정보공개제도를 비롯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연구와 개선방안을 도출함.

(정보공개법, 노동자알권리법, 회의공개법 등 연구 및 제도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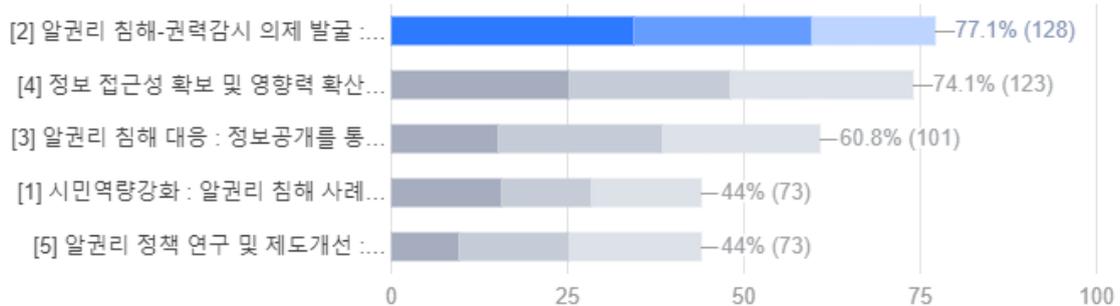
긍정 의견 Top2(4+5점)은 전체의 81.9%, 부정 의견 Bottom2(1+2점)은 전체의 1.2%로 나타났습니다.

점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긍정 의견 Top2(4+5점)이 부정 의견 Bottom2(1+2점) 보다 많은 긍정 편향 분포를 보입니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으로 4.34 입니다.



Q10. 향후 3~5년 이내 정보공개센터가 더 집중해야 하는 활동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선호하시는 순서대로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2] 알권리 침해-권력감시 의제 발굴 : 정보 은폐가 핵심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문제와 현안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발굴함.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공개 범위 확대, 국회의원 기록 및 정보공개제도 마련)

[4] 정보 접근성 확보 및 영향력 확산 :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개정보의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함.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국회의원 재산데이터 공개)

[3] 알권리 침해 대응 :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실현,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 협력적 대응을 추진함.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1997 외환위기 IMF비밀기록 공개)

[1] 시민역량강화 : 알권리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 교육)

[5] 알권리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 정보공개제도를 비롯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연구와 개선방안을 도출함. (정보공개법, 노동자알권리법, 회의공개법 등 연구 및 제도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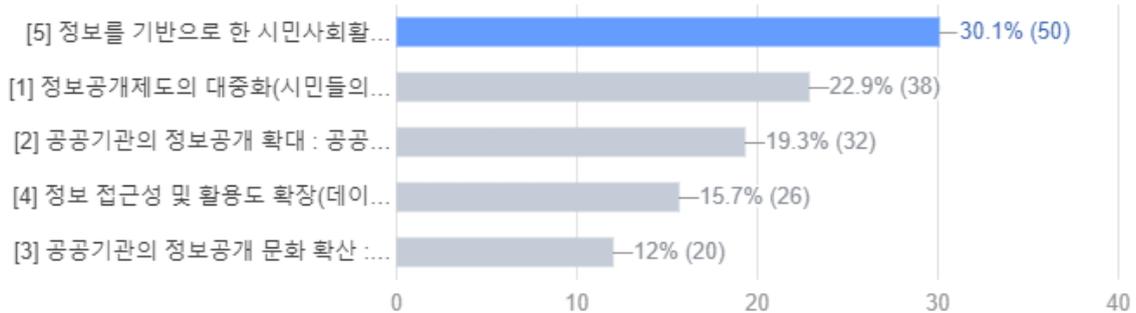
Q11. 그 밖에 정보공개센터가 향후 3~5년 이내 더 집중해야 하는 활동영역이 있나요?

잘 모름
캠프닷을 이어가는 것도 포함되면 좋겠어요.
지금도 매우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더 요구하긴....
생각해보지 않았음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하는 행정/의회/사법/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지금도 우리사회를 위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됨
지금도 너무 멋집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권력기관 발표
축적한 데이터, 활동소식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확장에 대한 활동, 고민
없음 지치지 말고 오래오래 활동해주세요
좋은 프로그램과 활동에 비해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음
주조작, 오염수 방류, 검찰 특활비 등
정부 감시 역할에 집중했다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파와의 협업처럼 언론사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정보공개를 통한 감시 영역을 메꿔주세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관련 의문사 및 징계, 지출비 등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는 많이 공감합니다만, 결국 모든 정보를 센터 혼자만의 힘으로 노력할 수는 없고,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돌려주면서 동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권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민중 주도의 정보 공개 체계를 일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는 독자적 집행 기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총괄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 지부 별로 정보공개센터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고, 아직 수많은 이야기들이 잠겨있는 지역 사회에 정보 공개 운동을 개진해서 국내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특히 참여자치 단체 등 자치에 관심 많은 기구랑 논의해보십시오. 또한 외국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UN에 정보공개 등 지수 측정을 논의해보십시오.
교육 · 학원 문제
정보공개활동을 통하여 불법·부당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보장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 활동가 교육 -회원 배가
선거제도개혁
지역 소규모 시민단체와 협업 및 역량지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적극적 홍보. 장기적으로 정보공개 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적극적 계도
국회의원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협력 사업을 통해 다른 분야들의 정보 공개 및 공유 활동을 촉진하면, 정보공개센터도 해당 분야들의 리더들도 함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부 구조를 겨냥하는 것보다는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 하부 구조의 협력을 촉진하는 쪽에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이 전반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1. 윤석열 탄핵 2. 국민의힘 해산 3. 기후 위기 대응 4. 윤석열 잔당 제거
권력 감시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활성화
지금도 충분히.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생각나면 그 때마다 제안할 수 있는 창구 열어줘 주세요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권력 감시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과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고, 정보청구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
용와대 세금 지출내역
힘내세요!
정보공개센터를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거절처분 취소 판결 db 마련 및 사법부의 법령해석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및 입법과제 제안
없음. 홍보활동?
사법부 법조 권력 감시
Machine readable 한 자료공개 요구강화
아직도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알권리라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정보를 시민이 알기쉽게 가공해서 공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없음 정보공개센터는 이대로 훌륭하다
지면관계로 다음으로
앞의 활동으로 충분합니다. 수고하세요!
은폐 정보 발굴
미디어 협업을 통한 권력 감시와 제도 개선
더 많은 시민에게 쉬운 언어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인식시키는 것
정책 개선
정보를 은폐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대응
정보공개, 데이터 분석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역량 강화, 개발자-활동가-시민등과의 네트워크 연계
정보공개 활동은 좋지만 노동단체와 연계하는 정치적 활동을 지양바랍니다
정부의 부당한 알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정공선의 데이터 기반으로 AI분석 툴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툴을 장착해보는건 어떨까요
정보공개교육사업을 통한 확장 운영 시민이 관심가질 이슈를 통한 이슈메이킹 (알권리. 애드보커시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 시민 일상 이슈 위주)
권력기관 감시 강화
화이팅!
아직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정보 비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현안 대응 및 관련자 공개 운동
화이팅
검사특활비처럼 아직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쓰여지는 세금을 밝혀주세요. 응원합니다
고령화 · 인구소멸 등 관련하여 중앙 · 지자체별 매니페스토, 예산 집행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라면 일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특히 지자체나 공기업등에 정보공개 위원회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면 좀더 좋은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공개 전문 지식을 시민과 회원들이 알아야 정보공개가 활성화될듯요
감사원을 감사하는건 누군지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도 조사해주세요 검찰의 시녀가 되어버린 사법부 믿을수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지금 활동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정공센의 활동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홍보기획에 힘을 기울이는거죠.
지속적인 권력 감시와 정보공유
1. 정보공개청구 건수 증가 및 '생산 · 보유문서(raw data)' 위주의 질적 증대 추구. 2. 받은 자료 전체공개(뉴스타파 데이터 페이지 방식 등으로)
정보공개 자체가 중요한 민주주의 기반이라는 것을 홍보하여 인식기반 자체를 다지는 것.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라는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

Q12.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 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



[5]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활동 확장 :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시민사회의 정보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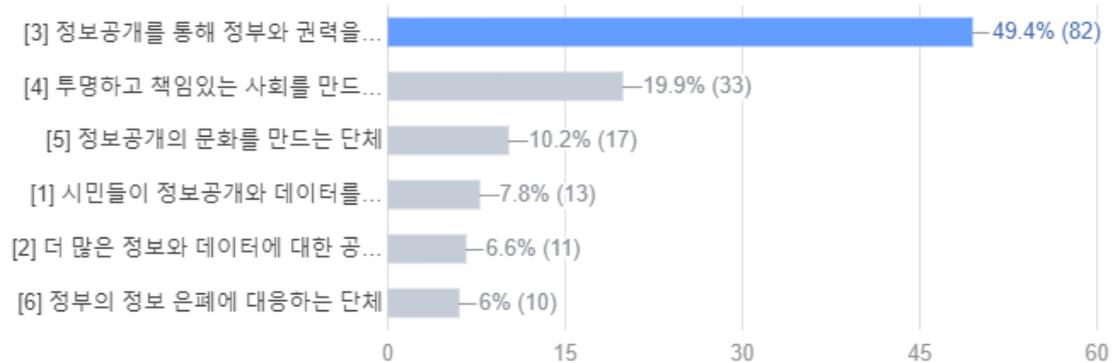
[1] 정보공개제도의 대중화(시민들의 인지도): 시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알고 활용하는데 역할이 크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역할이 크다.

[4]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확장(데이터 개방): 정부가 활용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역할이 크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문화 확산 :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역할이 크다

Q13. 평소 정보공개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가까운 보기 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



[3]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는 단체

[4]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드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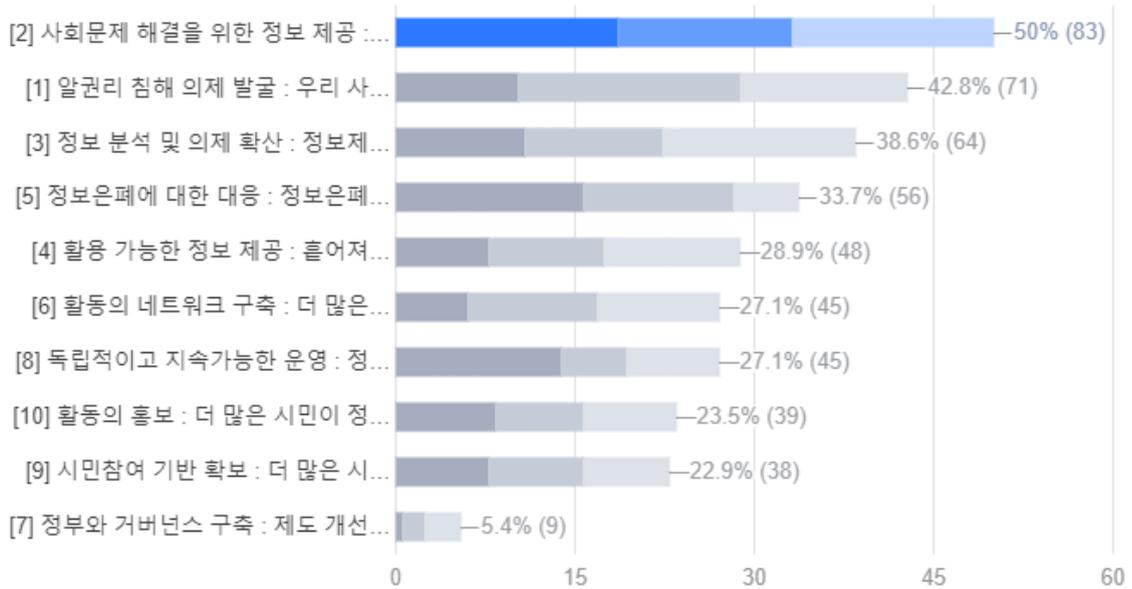
[5] 정보공개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체

[1] 시민들이 정보공개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단체

[2]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단체

[6] 정부의 정보 은폐에 대응하는 단체

Q14. 향후 3~5년 이내 정보공개센터가 더욱 강화해야 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호하시는 순서대로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은폐된 정보를 찾거나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합니다.

[1] 알권리 침해 의제 발굴 :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정보은폐 사례를 발굴하고 사회문제로 확장시킵니다.

[3] 정보 분석 및 의제 확산 : 정보제공을 넘어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통해 드러난 사회문제를 해결합니다.

[5] 정보은폐에 대한 대응 : 정보은폐사례 발생 시 필요한 법적 대응과 대안제시를 진행합니다.

[4]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 흩어져 있거나 제한된 정보를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6] 활동의 네트워크 구축 : 더 많은 그룹(단체, 언론, 정당 등)과 함께 알권리 의제를 확산시킵니다.

[8]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 정부지원 0%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더 많은 후원자를 확보합니다.

[10] 활동의 홍보 : 더 많은 시민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9] 시민참여 기반 확보 : 더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7] 정부와 거버넌스 구축 :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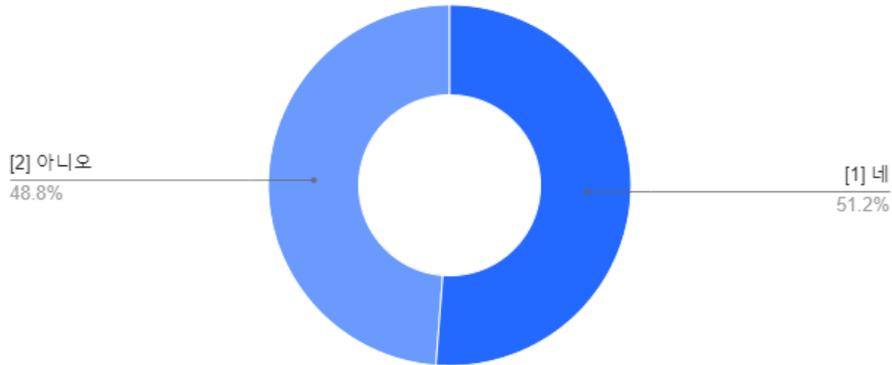
Q15. 그 밖에 정보공개센터가 향후 3~5년 이내 더 강화해야 하는 역량이 있나요?

잘모름
재미있게 활동하면 좋겠어요~ 흥을 강화!
활동 홍보
홍보? 네트워크 확장?
단체의 존립근거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명심하여, 억지로 살아남기위한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을 절대 삼가해야한다
현 정부 시기에 버티기 능력이요!
없음
데이터 공개
1. 윤석열 탄핵 2. 국민의힘 제거 3.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
더많은 시민들에게 활동을 알리는 것
지금도 충분히,
좋은 의제 항목에 있어서 든든하네요
활동홍보 및 시민조직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데이터 구축
모르겠네요
사법부 감시
없다
작은 모임(정보공개센터만의 특색, 학습 등으로 10인이하의 작은 모임)
지연관계로 다음으로
확보 자료 DB화 및 내외 부 공유
해외 사례의 국내 접목
홍보
건강하십시오
정보공개라는 틀 성격의 의제를 넘어설 그 무언가가 뭘까 고민됩니다
화이팅!
없습니다
교육이 너무 좋아서 종종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없음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후원 및 감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권력감시와 견제
이슈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요 파악, 접근성 · 가독성 높은 데이터 가공(시민이 좋아하고 선호할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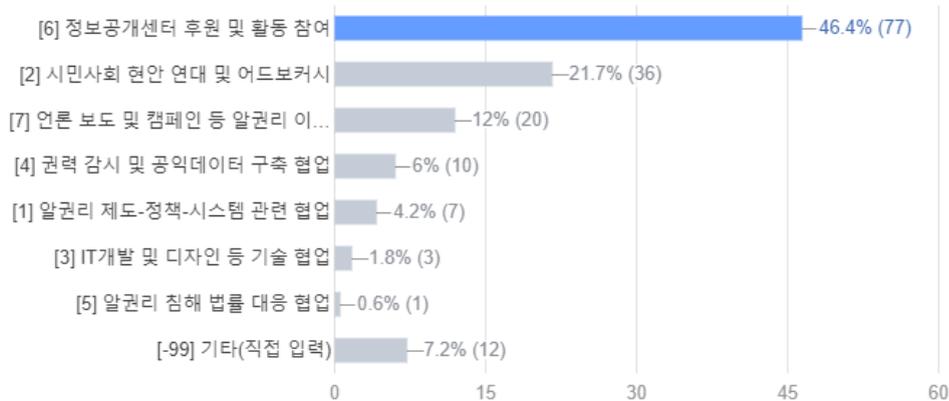
콘텐츠로), 고품격 콘텐츠와 정보별 시민 기고 참여 확대를 통한 프리미엄 채널화 등
교육 회원들 분기별 소통의 장 모일때 강남들 교동이 편한곳으로
모르겠음
없음. 활동가들의 건강..^^;
수고하세요
정보공개 시민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다면 좋을것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 잘 퍼지는 컨텐츠 활성화
없습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없이도 운영 가능한 조직 운영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데이터 공개에 그치지 않고 솔루션 저널리즘과 같이 문제 해결까지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Q16. 현재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가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2%의 응답자가 네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아니오(4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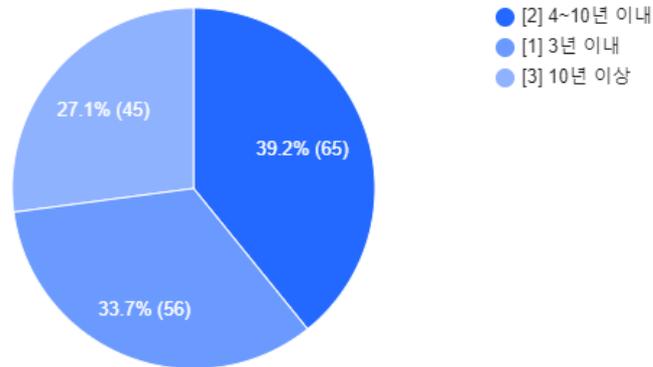
Q17. 정보공개센터와 어떤 협력(이해)관계인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관계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6] 정보공개센터 후원 및 활동 참여
- [2] 시민사회 현안 연대 및 어드보커시
- [7] 언론 보도 및 캠페인 등 알권리 이슈 확산 협력
- [4] 권력 감시 및 공익데이터 구축 협업
- [1] 알권리 제도-정책-시스템 관련 협업
- [3] IT개발 및 디자인 등 기술 협업
- [5] 알권리 침해 법률 대응 협업
- [9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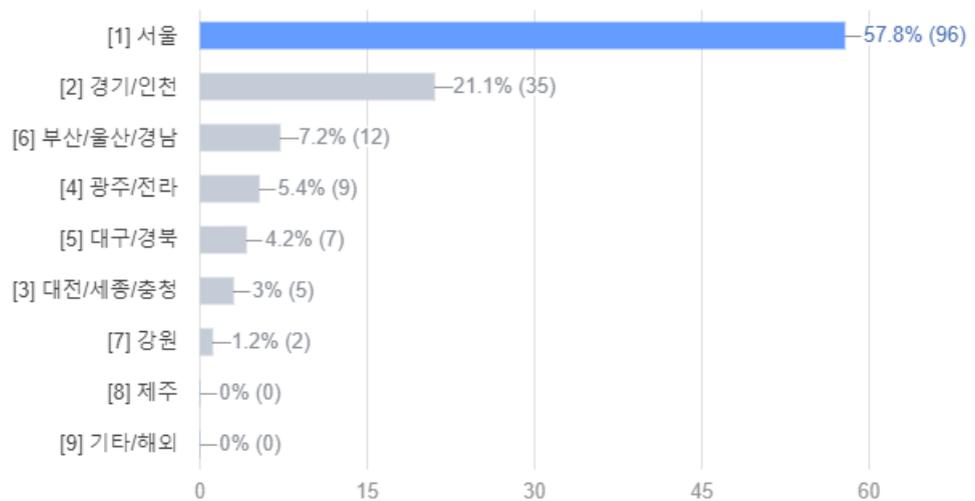
Q18. 정보공개센터를 알게 된 기간은 얼마인가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4~10년 이내(39.2%)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3년 이내(33.7%), 10년 이상(2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19. 생활지역을 알려주세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8%의 응답자가 서울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경기/인천(21.1%), 부산/울산/경남(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20.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40대(36.1%) 보기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30대(34.9%), 50대(1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